

# Claire McCardell 의상디자인의 표현된 기능주의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의상디자인과 박 선 경

## · 목 차 ·

- I. 서 론
- II. 1930, 40년대 American Style의 기능주의 스포츠룩
- III. Claire McCardell 의상디자인의 특성
- IV. 결 론

## <요 약>

본 논문은 1930,40년대 미국사회의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생성 될수 밖에 없었던 American Style을 독창적인 창작 활동을 통하여 American Look 으로서 정착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Claire McCardell의 의상분석을 통해 American Look 의 현대복식에서의 의의를 규명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McCardell은 자신의 시대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장소와 시간 대에 구애 받지 않고 계속 입을 수 있는 sport Look을 창조하여 미국적인 건강함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다. 바꿔 입을 수 있거나, 여행시 착용할 수 있는 의상, 유행스타일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능성 있는 스포츠 웨어으로써 고도의 우아한 스타일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녀의 디자인 개념인 McCardellism은 기능성 추구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녀 디자인의 다양한 특성 들로 혁신적이며 편안하고 단순한 형태의 순수성, 목적에 맞는 유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실용성, 이를 합리적인 생산방법인 대량 생산 방법에 맞추어 대중에의 적응력을 지닌 대중성의 특성으로 분류분석 할 수 있었고 그녀의 이런 특성들은 오늘날 현대 패션의 본질로써 정착하게 되었다.

## I. 서론

복식은 시대를 대표하는 관념과 가치관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상징으로 회화나 조각, 음악, 건축, 문학과 같은 문화적 환경에서 발달된 예술형태<sup>1)</sup>이고 현대 패션은 산업과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문명의 급진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유행현상과 복식사에 있어서 무수히 많은 변화<sup>2)</sup>로써 나타나고 있다.

20C 초반의 복식은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관념과 예술양식과도 그 맥을 같이 하여 미적이고도 기능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었다. 20C 초 다변화된 문명 사회 속에서 정신이나 물질 면에서 미국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패션을 통한 기능적이고 미적인 가치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1940년대 American Look의 새로운 발전이 현대 복식사에 끼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1930, 1940년대 미국을 대변하여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당대가 필요로 했던 American Style의 기능주의 스포츠 룩을 Claire McCardell의 의상의 특성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영향력 있는 경력을 통해 20C 많은 여성에게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우아한 의상을 제공한 Claire McCardell (1905~1958)은 American Look 을 현대 미국 여성의 스타일로써 자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대하고 재정립시킨 역할을 감당한 미국 디자이너이다. McCardell 의 캐주얼한 세퍼레이츠 개념의 스포츠 웨어는 미국 여성의 특유한 의상 스타일을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게 하였고 스포츠 웨어의 개념을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는데 앞장서게 된다.

본 연구 II장에서는 American Look 이 생성 발전 할 수 있었던 여건을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고, McCardell 이 왕성한 활동을 보여준 시기인 1930년대 말 194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기능주의 스포츠 룩의 특징들을 그녀와 동시대의 의상디자이너들의 정신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미적 특성의 공유를 통해서 먼저 얻어 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McCardell 의상의 근원이 되고 있는 기능성 추구를 대변하여 표현되어지고 있는 McCardellism 을 분석함으로써 그녀의 디자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20C 패션을 통해 전반적으로 나타난 스포츠 룩의 미적 가치와 그 특성을 정의 내림에 의미를 두고자 하며, 예술성과 기능성의 조화를 통해 실현시킨 Claire McCardell 의상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American Look 의 현대 복식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Marilyn Jhom, Lois M.Guel, 이화연의 2명 역 「The Second Skin」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p. 382

2) 이선화 “패션에 활용된 Raoul Dufy의 텍스타일 디자인연구” 복식 50권 5호 2000. 8, p. 26

## II. 1930, 40년대 American Style의 기능주의 스포츠룩

### 1. American look 형성의 시대적 배경

1930년 미국의 의류 산업은 불란서에서 제작된 완제품 의류의 직수입 총액이 1926년 8000만불에서 5564만불로 40%가까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 현상은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었지만 보다 더 큰 변화는 미국인들의 의식의 변화로써 불란서 제작 직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진 것이었다. 생산업자들은 미국 노동력을 동원해 진품을 복사하기에 이르렀고 소매업자들은 일부 pattern을 만들어 자체 공장 내에서 제작함으로써<sup>3)</sup> 독점적인 불란서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자립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성되기 시작한 단계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뉴욕은 수천 가지의 드레스, 슈트, 액세서리, 란제리 등 여성의류 판매의 디렉터리라 할 정도로 개인 소매점, 백화점, 특화점 형태의 상점들이 몰려 있었지만 파리의 디자이너 상가와 같이 하이패션의 중심이라 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Art Deco 스타일의 Chrysler 빌딩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Empire State 빌딩, Rocketeller 센터 등 뉴욕의 마천루가 형성되므로 뉴욕의 패션가는 점점 제 위치를 형성해 가게 된다.

'30년대 대부분의 생산업자들은 뉴욕의 8가와 메디슨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불란서 꾸뛰에르 디자이너 Louis bou langer, Patou, Lavin, Alix 등의 고급 Custom made 상점은 5번가와 메디슨가 사이와 4-10번가 브로드웨이에 포진되어 있었다. Macy, Saks thirty-fourth, Franklin, Simons, Boniwit Teller 등의 백화점은 불란서 유명 디자이너의 복사품을 판매하기로 유명했고 B.Altoman's, Boonngdale's, Lord & Talyers 등은 직수입한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95-\$1500까지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sup>4)</sup> 49street 5번가의 Hattie Caneigie는 전국에 체인망을 가진 Shop으로 1934년 문을 열고 Cannel, Worth, Schiaparelli, Alix, Patou, Mainbocher, Vionnet 등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의 의상을 Custom made 판매 방식으로 취급하여 인기를 끌고 있었다.

Hattie Caneigie의 오리지날 디자인을 위해서는 Claire McCardell이 1930년대 후반까지 In-house 디자이너)로 근무했다. Saks Fifth Avenue 에서도 Hattie Caneigie와 같은 시스템으로 국내 in-house 디자이너로 Jogce, Sophie Gimbel를 기용하여 자체 브랜드의 Ready to wear 컬렉션의 길을 개척하기는 했지만 좋은 반응은 얻을 수는 없었기에 역시 \$145-\$1500의 높은 가격대의 불란서 디자이너의 Custom made 상품 등을 수입 액세서리와 함께 판매함으로써 고급상점의 평판을 다져갈 수 있었다. Jay-Thorp도 Saks와 같은 판매 시스템으로 최고급 상점의 이름을 누릴 수 있었다. Hermes,

3) Caroline Remnolds Milbank,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New York: Harry N Abrans Inc., Publisher, 1989, p. 98

4) Caroline Remnolds Milbank, op., cit., p. 112

5) 생산라인이 있는 브랜드에 소속되어 있어 브랜드 자체 컬렉션을 개발해 낼 수 있는 디자이너로써 whole sales 시스템 하에서 일하는 제한이 있음.

Mariano Fortuny의 해외 상점 역시 5가와 메디슨가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다.<sup>6)</sup> 이와같이 불란서 직수입이나 불란서 모델로 통한 Custom made 판매방식의 미국여성들의 선호도는 뉴욕 패션가의 성격을 한가지로 묶고 있는데, 이처럼 '3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의 유행성향은 미국의 주체성이 결여된 유럽디자인에 대한 선망과 이에 따른 맹목적인 모방이었다.

미국인들의 Ready to wear 미국인 디자이너에 대한 무관심은 불란서 꾸뛰에르 디자이너와 미국 Ready to wear 디자이너 사이의 평판을 크게 구별시켜 놓고 있다. 꾸뛰에르는 자신의 옷이 유행을 타면서 스타가 되어버리지만 미국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옷이 잘 팔린 Patrick tappe, Henri Bendel, Steinmete 등 까지도 모두 이 시기에 익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시스템 상에 문체로써 상점을 운영하여 자신의 이름이 공개된 디자이너들은 그 명성이 알려질 수 있었지만 Whole sales 시스템 하에서 일하는 In-house 디자이너에겐 그 이름이 공개 될 기회가 주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Eligabeth Hawes는 파리와 러시아에서 패션쇼를 통해 그 이름이 알려질 만 했지만 나중에 4가에 자신의 상점을 개점하고서야 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sup>7)</sup> 이는 미국의 Whole saleser들은 1년에 2 번씩 패션 언론사나 바이어들에게만 Ready to wear로 준비된 콜렉션을 선보일 뿐 디자이너 개인에 대한 홍보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변화가 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데 New York Times는 애국주의, 도덕적 정서, 패션사업을 복합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미국 국내산 의상을 만드는 디자인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자국의 디자이너들을 격려하는 사업을 일으키기 시작한다.<sup>8)</sup>

이러한 시점에 사회적 관심에 따라 '3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서서히 사회적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여 미국 국내 디자이너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이 실리적인 추구로 형식에 구애받기를 원치 않는 독립적인 사고 속에서 미국식 의복 착용 스타일은 19C 말부터 태동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사회적 현상이었다. 미국 국내 디자이너들은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그대로 그들만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술성은 다소 부족하다해도 디자인의 기능성을 더 존중하였고 잘 만들어졌을 땐 저절로 최고의 옷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스포츠웨어는 '20년대와 '30년대 스웨터, 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반바지 등 스포츠 관람 시 입는 의복인 캐주얼웨어를 의미하는 용어로 그 기능적인 우수성으로 대중화하게 되었다.<sup>9)</sup> 이 스포츠웨어가 미국인들의 취향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스포츠 웨어가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카테고리로 등장하게 되어 American Style로써 대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자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성립될 수 있었던 이 새로운 스타일은 미국적인 삶의 방식과는 잘 맞지 않는 파리 직수입 상품이나 그 모델들을 복사해서 만든 옷들과는 완전히 구별 지어진다. 이 새로운 스타일

6) Caroline Renolde Milbank, Op., cit., p. 114-119

7) Ibid., p. 121

8) Ibid., p. 132

9) Charlotte Mankey Calasibette, Ph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Fairchild Publication, 1988, p. 545

이 자국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당대의 삶의 즐기며 살아가는 미국 여성들의 생활에 필연적인 의상, 미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의상이 되어 실용적이고 캐주얼하여 편안함을 주장하는 기능적인 스포츠웨어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1939년 파리가 전쟁에 휩싸이자 파리 꾸뛰에르들이 전부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미국 내 파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자 미국의 패션계는 불란서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 자국 패션계의 독립성을 세우기 위한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뉴욕시장인 Fionell la guardia에 의해 뉴욕을 세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패션도시로 만들기 위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위원회가 결성하게 된다. New York Times는 미국 국내 디자이너들의 프로파일을 신문에 실기도 하고, “Fashion of the Times”라는 쇼도 기획하여 그들에게 자생력을 심어주었다. 패션 평론가와 패션잡지 편집기자들은 Claire McCardell을 위시한 미국 국내 디자이너의 상품들을 쇼를 통해서 소개 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사업조직을 체계화 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며 헌신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디자이너 자신의 이름이 알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란서 상품의 Custom made 고급상점과 복제품 위한 상점도 그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적은 수의 숙련공에 의해 그 많은 부분이 외국산의 복제품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미국산 생산품이 자국 디자이너에 의한 자생력을 지닌 생산품으로 점점 생산을 늘려 가게 되고, ‘40년대에 들어서는 완제품의 직수입 의류품목의 수입총액도 전년도에 100만불에서 12.5만불 정도로 그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sup>10)</sup>

1943년 미국 생산위원회에서 발표된 L-85 규제안은 웨딩 가운, 종교예복, 임부복, 장례복, 신생아복 등을 제외한 모든 의류 제작 시 주어지는 제한으로 전쟁에 소요되는 재료 확보를 위해 지시된 특별 사안으로<sup>11)</sup> 기계부품, 기술, 노동력 등을 통해 생산업자 에게도 제한된 규정이 적용되었다. 가족류에 대한 L-217 규제안<sup>12)</sup> 등 기타 많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의 미국산 생산품의 스타일엔 다양한 변화가 보여 지고 있다. 미국 국내 디자이너들은 규제안에 따른 모든 제한된 소재 사용의 한계 내에서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필요에 충당되는 기능적인 적절한 해결 방안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American look의 한 특성으로 제시되고 생성되어진다.

또 다른 특성으로 나이든 여성들은 전쟁 중 제한된 규정과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드레스나 슈트를 어렵게 한 벌로 맞추어 구입하는 반면에, 젊은 여성들은 주말여행이나 여가시간의 스타일의 변화를 위해 ‘30년대 중반 Claire McCardell에 의해 코디네이트 콜렉션으로 이미 선보인 적이 있는 단품들을 통한 앙상블이 될 수 있는 것들끼리의 연출방법인 Mix and Match 스타일의 pieces 구입으로, 변화 있고 경제적인 Out fit의 해결책으로 삼고자 했다. 이런 모든 조류가 American look의 세퍼레이트 코디네이트 개념으로 미국인들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대변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10) Caroline Remolde Milbank, Op., cit., p. 133

11) Ibid., p. 134

12) 전쟁 중 국가차원의 미국 생산 위원회에서 발표한 규제안으로써 가족류의 일반인들의 사용을 철저히 통제시킨 법률안

종전 직전 1944년, New York Times 패션쇼를 통해 미국 패션계는 불란서의 영향권 아래서 완전한 독립을 시도한다. 미국산 섬유와 기술 만으로만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한된 규정 내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들만의 자산을 자부심을 가지고 일구어 나가게 된다.<sup>13)</sup>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미국 국내 디자이너들은 전쟁이 끝나면서 전문가 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훈련해 온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상의 디자인으로 인정받고자 했다.

1947년 Dior의 New Look이 발표되고, 전쟁직후 여성들의 패션경향은 전쟁동안 억눌렸던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약간은 사치스럽고 화려해진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전쟁으로 인한 불란서 패션의 단절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불란서 패션이 세계에 다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Claire McCardell을 중심으로한 뉴욕의 몇몇 디자이너들은 본인들의 의상철학을 계속 주장하게 된다. 이 주장은 호소력을 지니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쟁시기 동안 짧았지만 뉴욕은 패션의 중심이 되었고 American look이 세계 패션을 이끌고 그 영역을 굳힐수 있게 되었던 것은 목과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Dior가 뉴욕에서 새 상점에 문을 열으로써 미국 패션의 권위를 조금은 뒤로 물러서게는 하였지만 전쟁전의 상태로 되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 짧은 전쟁기간 동안 American look이 발전해 나감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고 또 확고하게 제 위치를 갖출 수 있는 자생력은 충분히 갖추어지게 된 것이었다.

## 2. American look 형성의 사회·문화적 배경

1925년 파리박람회 전시 초청을 받았을 때만 해도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들은 단지 고대 양식의



<사진 1> '20년대 새로운 양식의 뉴욕 백화점 디스플레이

복제와 위조품만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에 이 초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2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디자인은 유럽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었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으로 미국은 '20년대 우세했던 유럽의 장식적인 스타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1925년 파리 박람회를 통한 Art-Deco의 영향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끼쳐 각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물질적 편안함과 편리함의 미래를 기대하며 새로운 양식으로 크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었다.(사진 1)

1910년, 미국인의 자동차 소유는 184명당 1대 이었던 것이 1930년에 이르러서는 5명당 1대 꼴로 그 소유가 급성

13) Caroline Rennalds Milbank, Op. Cit., p. 133

14) 베비스 힐리어 :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서울 : 수확사, 1993, pp. 116-117

장했고, 모든 기계류의 유선형의 형태는 과학, 산업, 사업의 시대, 기계의 시대를 위한 특유한 기계 스타일로 상징화할 뿐 아니라 특유의 미국식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sup>15)</sup> 이는 형태가 기능을 따라간다는 초기 산업 디자인 원칙 하에 불필요한 장식을 없애고 재료의 속성 자체에 중점을 두는 디자인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sup>16)</sup>에의 영향을 기초로 하고 있다.

Coco Chanel은 유럽에서 캐주얼하고 단순하여 장식함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우아함을 지닌 채 대중화시켜 기능주의의 성향을 띤 편안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스포츠 룩은 스포츠나 스포츠 웨어의 형태, 디테일, 색상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의복 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일상복이나 이브닝 웨어 등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복이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외형적 특징으로 가질 때 스포츠 룩이라 정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룩이란 미적 조형성을 위해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을 위한 특성을 사용하는 룩을 의미한다.<sup>17)</sup>

기능주의 디자인은 '30년대 미국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다양하게 발전하게 되어 전통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 패션을 기능주의 스포츠 룩으로써 독창력을 지닌 채 세계에 영향력을 주면서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비록 물자의 부족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에겐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L-85 규제안은 특정 섬유의 사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디자이너가 사용 할 수 있는 섬유의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여성복의 경우 드레스의 기장은 72" 한도 내로 스커트 단과 벨트폭은 2" 폭, 자켓의 기장은 25 "이내로, 팬츠의 바지폭은 19" 이내로, 코트의 등에는 주름을 넣을 수 없고 스커트에 전체주름은 금지되어 있고 좁은 폭의 긴 스커트의 움직임에 위해선 Slit를 주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절대적이었다.<sup>18)</sup> 1943년이 되도록 이 규제안은 전 미국인들에겐 그들의 애국정신에 입각하여 호응적으로 더 절약하는 방법으로 솔선수범 되었다. 군인들의 유니폼이나 담요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소재인 울섬유의 사용제한으로 울 브랜드, 재활용된 울섬유, 레이온 섞인 울섬유가 100% 울섬유 대신 사용되었고 레이온, 개버딘 등이 울섬유의 대체용으로 사용되었고 지퍼, 금속단추 등의 금속류 사용제한으로 천단추나 후크가 대용되었다. 군인용 부츠와 가죽벨트 제작 때문에 구두는 가죽대신 천, 코르크굽, 나무굽, 플라스틱굽으로 만들어져야 했던 L-217 규제는 구두의 색상까지도 6가지로 제한했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제 상황 아래서 미국 디자이너들은 그 창의력을 발휘하여 울섬유 사용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 직면한 난제들을 대처해 나감을 볼 수 있다.(사진 2)

15) Ibid., p. 116-170

16) H.W.Janson, 「Form follow Function-or Does it? Modern design theory and the history of art」, Amsterdam : The Academiche Preks, 1982, p 6

17)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룩에 관한 연구」복식 50권 2호 2003. 3, 9.

18) Caroline Rennalds Milbank, Op. Cit., p. 133-138

19) Ibid., pp.133-138



〈사진 2〉 2차 대전 중 소재사용의 규제에서도 창의력을 발휘 한 미국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표현

### 3. '30 '40년대의 미국 디자이너의 디자인 특징

American look이 근본적으로 캐주얼 하고 편안하여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성격 지워져 있지만 이 시기의 초기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한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광범위한 성격적 요소, 기후, 지역에 따른 생활환경, 경제력, 체형, 행동양식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디자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보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츠 웨어를 중점으로 다룬 Rosenstein, Germaine Monteil와 클래식한 스포츠웨어를 다룬 William Bloom, Helen Cookman, Claire potter의 부류와 모든 종류의 스포츠 웨어와 이브닝 웨어에 American Style의 특징을 부여한 Claire McCardell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Claire potter는 1937년 Women's sportwear 상, 1939년 Neiman-Marcws 상을 수상했고 유럽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파리 방문의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였다. 멕시코와 버뮤다 여행으로부터 디자인의 영감을 받는 그는 뉴욕 근교의 농장에서의 생활을 위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활력이 넘치는 미국적인 이미지의 컷트 라인이 있는 팬츠, 짧은 팬츠, 파자마형 팬츠 등으로 기능성 높은 디자인을 추구했고, 라인과 색상의 컴비네이션에서 효과를 주었다.(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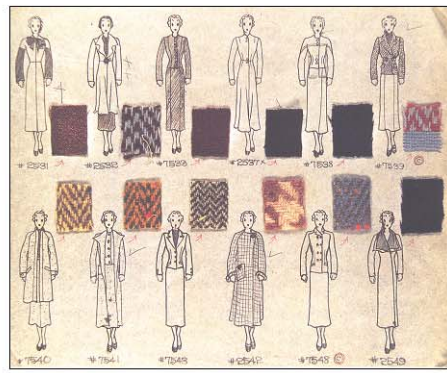
Helen Cookman은 스코틀랜드 트위드, 린넨, 울 등의 기능성이 있는 섬유를 주로 사용한 기본적인 테일러링 스타일을 디자인했다.(사진 4) William Bloom은 활동성 높은 니트 패브릭을 사용하며 기능성을 높였고, 스포츠웨어의 기민성을 위해 30년대 초기에 처음 울 지퍼를 사용했다. Germaine Monteil은 이브닝 웨어를 혁신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편안하게 디자인하였고(사진 5) Rosenstein 역시 캐주얼한 이브닝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sup>20)</sup> 이러한 디자인들은 비 장식적이며 과거에서의 분위기를 통한 새로운 방안으로 형태, 재질에 충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 Ibid., p. 124-129





<사진 3> “라인, 색상의 배합과 함께 기능성 높은 Clare potter의 디자인



<사진 4> 기능성 있는 섬유로 기능성을 추구한 Helen Cookman의 테일러링 스타일의



<사진 5> 새로운 감각 Germaine Monteil의 이브닝 웨어

Claire McCardell은 금속 잠금 장치 대신에 낫쇠장식(사진 6)이나 후크로 옷을 여미었고 잉여 낙하산 만드는 섬유로 만든 면 드레스는 손님을 초대할 여주인의 디너용 드레스(사진 23)로 요리 준비를 할 때는 조화시킬 수 있는 앞치마를 덧입어 편안하고 기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제시했다.

Joset Walker의 허리를 끈으로 조여주는 테일러링 형태의 드레스는 가정에서 가사시에 편안감을 주는 기능성 높은 디자인이었다.

Vera Maxwell은 칼라 없이 리버서블 한 오버랩 되는 직선 실루엣의 트위드 코트로 1/3마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 가능한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디자인을 모색하였다.

Adrian 슈트 역시 요크 주름 스커트와 재활용된 자켓으로 안감 소재의 허리를 조여 맨 자켓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이었다.

Main Bocher은 니트 스웨터와 니트 가디건을 히팅 시스템이 부족한 저녁 시간대를 위해 디자인 하였는데, 이와 같이 많은 디자이너들이 소재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 기능성 높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그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었다.<sup>21)</sup>

시대 상황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그 목적에 적절하게 맞추어진 미국 디자이너들의 의상은 호응을 받게 되고 전 미국은 물론 유럽에까지 그 판매량을 넓혀가게 된다. 이들의 의상은 적절한 가격과 여성들의 정확한 마인드를 파악하고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의복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앞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여 독립적이고, 미국적이며, 민주적인 다양성을 지닌 것으로



<사진 6> L-85 규제한 금속사용 제한으로 낫쇠장식을 대응한 McCardell의 바디스

21) Ibid., p. 138-142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C에 이미 태동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스포츠웨어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전쟁 중 활동 목적에 적당한 기능성 높은 디자인의 정착과 함께 American look의 특성으로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 III. Claire McCardell 인상디자인의 특성

#### 1. McCardellism

현대 스포츠웨어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American Look의 창조자로 일컬어지는 Claire McCardell은 1926년 New York의 Parson 스쿨과 파리에서 의상공부를 한 후 1929년 Robert Turk의 조수에서 1932년 Townley의 수석디자이너로, 1938년 Hattie Carnegie에서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표한다. 1940년 "C McC"로 자신의 오리지널 브랜드를 시작한 McCardell은 5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만이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부응할 수 있는 감성적 욕구를 적절하게 디자인 해낼 수 있다는 긍지와 함께 창작활동에 임하였다. 이는 미국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에 맞는 생활 패턴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용한 디자인들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자신의 생활을 통해 느끼고, 그에 필요한 부분들을 감지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그녀만의 독특한 창의성을 통하여 성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첫 번째 사업적 성공은 1938년 가을, Townley 소속 in-house 디자이너로 있을 때 제작한 Monestic 드레스(사진 7)로 30년대 후반 당시 크게 유행하던 Schiaparelli의 각지고 강조된 어깨선을 가진 정형화된 실루엣의 의상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 성공적인 사례는 몇 시즌 동안 계속 스커트 기장만 달라지면서 같은 디자인의 주문을 쇄도하게 했는데, 이는 미국인들이 미국인들만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또 온전히 자신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열망과 이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필요로 했고,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1939년, V형 목선의 바디스의 앞쪽 여밈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게 가운 형태로 두르는 짧은 스커트 드레스의 특징(peplum over skirt)은 바로 McCardellism을 일컫는 것으로<sup>22)</sup> 편안한 Wrap-Front 형의 데님 드레스에서 화려한 줄무늬 소재의 이브닝드레스(사진 8)나 체크무늬의 캐주얼 드레스(사진 9)로 변형시켜 가며 미국에는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어 진다.<sup>23)</sup>

22) Kohle Yohannan & Nancy Nolf, 「Claire McCardell Redefining Modernism」New York : Harry N.Abrams, Inc., 1998, pp. 129

23) Kohle Yohannan & Nancy Nolf, op., cit., pp. 41-45



<사진 7>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형태를 갖출수 있는 Monestic 드레스



<사진 8> Wrap-front 형의 줄무늬 이브닝 드레스



<사진 9> Wrap-front 형의 캐주얼 드레스

1940년 동안 미국 의상계에 그녀의 영향력은 놀랄만한 것으로 이는 과장된 어깨 패드의 포기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자유함과 편안함, 또 실용적이고 대중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을 통해서 얻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American Look”은 그녀의 Monestic 드레스 판매를 위해 Best & Co. 회사에서 광고 카피용으로 쓰기 시작한 용어로<sup>24)</sup> 1945년 Lord & Taylor에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캐주얼한 미국적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옷을 만드는 Claire McCardell, Tina Leser, Claire potter, Carolyn Schmurер, Tom Brigance, Bonnie Cashin 등의 스포츠 웨어 디자이너들의 개성적인 미국 스타일의 전국적인 판촉물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면서 통용화<sup>25)</sup>되게 된 용어이다. McCardell의 뛰어난 재능과 프랑스 패션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며, 캐주얼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완전히 미국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제안한 미국 패션계에의 뛰어나고 구체적인 기여 때문에 그녀를 American Look의 창조자로 일컫고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American Look이란 미국여성들과 그들의 삶에서 얻어낸 영감이며 나에게 있어선 미국적인 - 미국같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 그것은 자유이며, 민주주의이며 - 캐주얼하며 건강한 실용적인 모든 것으로 의상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다.”<sup>26)</sup>라고 언급한 McCardell 본인의 사상 또한 이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미국의 산업 디자이너인 Raymond Loewy, Donald Deskey에 의한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심미적인 유산은 미국의 모든 산업 디자인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확산되었다. 생산기술상의 기능성과 그 적절한 유용성이 대량생산과 미국의 산업을 규정함을 확신한 McCardell은 1943년 그녀의 상표를 “Claire McCardell Clothes Construction”이라고 바꾸며 옷은 유용한 것이어야 함을 역설했고 옷은 필요 없는 복잡함과 번덕스러운 장식들로부터 해방되어 옷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몸에 맞추어 저야 함을 주장함으로<sup>27)</sup> 산업 디자이너

24) Ibid., p. 138-142

25) Caroline Rennalds Milbank, Op. Cit., p. 132

26) Kohle Yohannan & Nancy Nolf, op., cit., pp. 83-87

Loewy와 Deskey와 같이 “형태가 기능을 따라 가야 한다”는 초기의 산업디자인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진 10> 스키탈 때 보온을 위해 McCardelli이 입고 있는 Tuttle neck 스웨터



<사진 11> 경험으로 필 요성에 의해 제작된 Tuttle neck 스웨터 Superman 모자



<사진 12> 1944년 9월 Happer's Bazaar의 6piece 세퍼레이트 시스템 광고

스키를 타면서 느낀 차가운 돌풍은 그녀로 하여금 귀를 덮는 Tuttle neck 스웨터의(사진 10) Superman 모자(사진 11)를 만들어 내게했는데 그녀는 항상 어떤 목적이나 필요성에 의해 디자인을 하였고 디자인 된 옷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이너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됐다.

그녀의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은 그녀의 창작 세계에 언제나 영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남자 형제들과의 놀이 중 여자아이의 드레스로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었던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활동이 편한 여성복을 위해 남성복적인 요소를 도입하였는데, 큰 주머니(사진 18), 넓은 소매통, 접어 올려서도 맵시를 낼 수 있는 소매 형태 등 의복의 기능성을 디자인의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Sample실에서 큰 주머니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녀는 늘 주장했다. 주머니가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당연한 기능을 지닌 것처럼 여성들이 편하지 않을 때나 성취 받았을 때 손을 넣을 수 있는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절대적인 생각이었다.

1934년 발표된 그녀의 세퍼레이트 시스템은 보편화 되어있는 당시의 유행경향으로 볼 때 10년은 앞선 생각이었다. 양모 저지로 제작된 5~6 pieces 아이템을 서로 바꾸어 입을 수 있는 직장인이나 젊은 여성 등 누구에게나 그 유용성, 기능성으로 호응을 얻어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을 수 있었던 진보적인 디자인으로 스포츠 웨어의 Mix and match 개념의 정착화를 앞서 시도한 것이다. 10년이 지난 1944년 9월 Happer's Bazaar에 McCardelli의 6 piece 세퍼레이트 시스템에 대한 기사가

27) Ibid., p. 95

(사진 12) 대서특필되었다. Mix and match을 통한 코디네이트 개념은 자유롭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미국의 기능주의 스포츠 룩의 근본적인 스타일<sup>28)</sup>로 정착되어지게 된다.



<사진 13> McCardellism의 상징 : 황동고리 단추



<사진 14> McCardellism의 상징 : 이중 Top-stitching



<사진 15> McCardellism의 상징 : 스파게티 스트링 타이벨트



McCardellism은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황동으로 만든 고리단추와 벨트 고리 등의 금속 잠금 장치(사진 13), (사진 21) 이중으로 박은 top-stitching(사진 14), 스파게티형 스트링 타이(사진 15), 대조적 색상의 긴장식, 띠형의 벨트(사진 16), 남성복 요소의 장식 표현(사진 17) 등에서도 그 기능적인 목적을 근본으로 하면서 나타내고 있다. 금속 잠금장치는 남의 도움없이 혼자 옷을 입고 벗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드레스의 여밈쪽을 앞쪽으로 하기를 주장한 그녀가 여성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옷을 착용할 수 있도록 효과와 장식을 겸하여 제안한 것이다. 이중 top-stitching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바느질 기법을 위해, 스파게티형 스트링 타이와 긴 장식 띠의 감고 묶는 디자인은 전쟁 중 부족한 지퍼, 가죽, 잠금장치 대신에 제안된 감고 묶는 형의 벨트로 허리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성과 실용성이 갖추어진 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인기를 끌었다. 큰 주머니의 남성복 요소의 장식 디테일은 남성복의 기능적인 면을 가용하고자 함이었다.

28) Ibid., pp. 83-87



<사진 16> McCardellism의 상징 : 몸판과 대조적 색상의 장식띠형의 벨트

<사진 17> McCardellism의 상징 : 남성복의 큰주머니에서 영감을 받음

세퍼레이트 시스템을 포함한 이 모든 특징들은 바로 McCardell의 디자인 철학과 그 특성을 함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1950년 McCardell은 Women's National Press Club 상을 패션 디자이너로써는 처음으로 받는 영광을 갖는다. “직업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적인 미국 여성의 모습, 옷은 입으려고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에 옷은 편안해야 한다”는 그녀의 믿음 때문에 현대 미국 여성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활동적으로 확장한 것을 인정받아 무용가인 Martha Graham와 함께 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직접 표창을 받았다.<sup>29)</sup> 이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창의적인 의상에 대한 꾸밈없는 열정으로, 그 기능성 추구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그녀의 창의적인 예술성에의 발로를 통해서 일구어진 것이었다.

## 2. Claire McCardell 의상의 미적 특성

### ① 순수성

‘30년대 말 파리 패션에 반발하는 미국 패션계의 주된 분위기는 미국 패션이 파리 패션으로부터 독립해 미국을 대변할 수 있는 결합체로써의 역할을 갖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파리 패션이 미국인들을 의복으로 유럽인들의 노예로 예측시키고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의 미국인 식자들의 미국적 시각이었다. 20C 초 미국의 의류 개혁자들을 ‘청교도의 후손들이 악마의 도시 파리에서 만들어진 옷을 입는 것에 불만’이었고 그들은 또한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 여성들이 외국 패션으로부터 정복당하는 것을 막아야한다’라고 주장하였었다.

29) Ibid.,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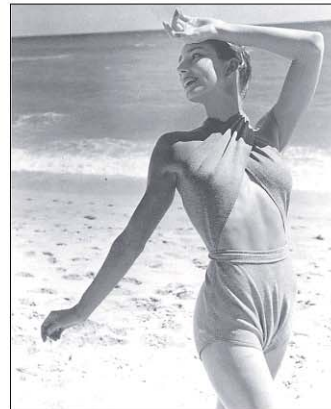
<사진 18> Empire-style 드레스 단순, 자유스러움 강조 :순수성의 예



<사진 19> 단순함에 어깨, 허리선의 변화로 용도변경 가능한 디자인: 순수성의 예

1938년, McCardell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정형화 된 파리 스타일에 도전하여 인체의 과장이나 지나친 장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체의 자연스러운 실루엣 그대로를 존중하는 편안하고 기능적이며 자유스러운 스타일을 미국적 특유한 스타일로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다. 수도사의 예복과 같은 형태여서 이름 붙여진 Monestic 드레스는 어깨부터 드레스 기장 끝까지 허리선의 제약 없이 내리달이로 바로 걸쳐져 바이어스 컷트 처리 되어져 있어 원하는 위치에 벨트를 맬 수 있는 스타일이다. McCardell을 유명 디자이너로 만든 Monestic 드레스는 의복으로 신체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꾸밈이 없는 단순하고 자유스러운 의복 스타일로 융통성의 특성을 지닌 당대로선 도전적이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이 특징은 그녀의 디자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추구되는 특성으로 1950년 Empire-style 드레스(사진 18)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융통성 있는 어깨선과 허리선을 통하여 변화를 줄 수 있어 직장여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녁시간에는 sash나 어깨선의 변화와 함께 이브닝 웨어로 활용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사진 19)

McCardell의 수영복은 그녀의 혁신적인 접근에 좋은 예가 된다. 1936년 그녀는 현대적이며 충격적인 Diaper 수영복(사진 20)을 선보인다. 한겹의 천으로 밑위 부위가 한 겹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기저귀를 걸친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이름 붙여진 이 수영복은 한 폭의 천을 커팅선이 없이 목 주위로 둘러 그대로 다리사이로 그 폭을 연결시켜 허리에 매게 되어 어느 유형의 체형에도 맞도록 구성되어 있는 독특한 스타일로 현대적인 단순미를 제공하고 있다. 당시의 대부분의 수영복은 무거운 가슴부위 패드와 함께 두꺼운 속옷과 안감이 붙어 있었는데 수분이 빨리 마를 수 있는 월등한 성능을 지닌 가벼운 저지천의 Diaper 수영복은 1943년이 되어서는 엄청난 매체의 관심과 함께 특집 기사화되는 인기를 누린다. 높은 가격에도



<사진 20> 현대적 단순미의 Diaper 수영복 : 순수성의 예

불구하고 세 시즌이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로, 발표 초기에의 혁신적인 디자인의 진가가 7여년이 지난 후에도 설득력 있게 나타나, 그녀의 시대적인 디자인 욕구의 향방에 대한 통찰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 받게 된다.

1954년 Sports illustrator에서 McCardell은 “스포츠 의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성들의 의상에 자유함과 편안함을 부여함으로써 스포츠 의류를 통해 그들의 사고에 독립심과 자유함을 심어 주고자 했다.”<sup>30)</sup>라고 했다. McCardell은 의복의 잠금 장치를 등 뒤에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사진 21). 그녀는 미국 여성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복을 입고 벗을 때 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성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감지하였고 또한 이를 스스로 여성들에게 고취시키고자 했다. 즉 그녀 디자인의 근원이 되고 있는 움직임의 자유로움은 미국 여성들의 정신적인 사고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디자인이 많은 여성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사진 21> 여밈 부분은 언제나 앞쪽에 설정



<사진 22> 자유스러움과 편안함을 추구 하는 양모 저지 양상블

1943년 Life지는 McCardell의 양모 저지 양상블을(사진 22) 몸 전체의 타이트한 피팅감과 노출의 정도와 움직임의 편안함 때문에 혁명적<sup>31)</sup>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녀 디자인의 근원이 되는 움직임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의 추구로 인해 당대의 유행 경향인 정형화된 과장되고 장식적인 실루엣에 도전되는 가치 혁신적이며, 모험적인 다양성을 지닌 채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McCardell은 인체의 편한 움직임을 가공미를 배제시킨 단순한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 디자인의 특성 또한 의복 자체의 장식성과 신체의 변형을 통한 인공성과는 상반

30) Ibid., p. 12

31) Ibid., p. 69



된 표현인 순수미를 추구하고 있다. McCardell은 이를 통해 인체의 자유스러움을 실현시키고 있고 그 표현 방법으로 순수미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McCardell 의상의 순수성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② 실용성

1941년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자 그 산업은 남성인력 부족 현상으로 위기 상태에 달하게 되고 미국의 산업계는 여성 노동력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McCardell은 이러한 여성 인력의 동원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감지했고, 사회 활동 여성의 바쁜 생활에 대한 제안으로 손질하기 쉽고 저렴한 가격의 데님 섬유, 내구성이 강한 면섬유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유용성을 배가 할 수 있는 양모 저지류의 세퍼레이트 스타일, 입기 편하고 디테일 등 장식이 없는 기능적인 스타일 등을 발표한다. 그녀의 제안은 학생들, 사무직 여성, 생산직 근로 여성, 가정주부 등 활동을 많이 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McCardell이 심취하여 디자인 한 것은 다목적용 의상으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지고, 세탁이 용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 적당한 옷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생활을 위해 단추 없이 말알 올릴 수 있는 소매 디자인, 튼튼한 더블 top-stitching으로 시접부위 처리 등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디테일 처리 방법이었다.

1942년 L-85 규제안으로 많은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의욕이 꺾였지만 McCardell은 오히려 그러한 규제 지침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장식적이지 않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 추구가 디자인 철학인 McCardell은 유용성이 있는 기능적인 섬유 사용을 즐기고 있는터에 시대적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적응력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터였다. L-85 규제안에 의한 섬유사용 제한으로, 다른 디자이너들은 사용하던 기존의 섬유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섬유를 찾아야 했지만, 매트리스 섬유, 아마포, 란제리용 섬유 등과 같은 색다른 소재조차도 McCardell의 컬렉션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던 익숙한 것들이었다. 정부의 과잉 생산으로 사용을 권장 받게 된 전투 낙하산용 Weather ballon 먼, 앞치마용 린넨, 식탁보용 린넨, 실크 레이온, 등을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녀의 독특한 창의성은 경제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로서 이 시대의 사회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요소로써 제공되고 있었다. 뛰어난 재치와 사회에 대한 기여로, 금속지퍼와 금속 잠금 장치를 줄이고 가죽 벨트에 대한 제안으로 허리부위를 감고 묶는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 제안은 실용성 추구를 통한 그녀의 창의력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실례로, 전쟁



<사진 23> 주말 파티의 Hostess 역할을 즐기는 주부들을 위한 Pop-over 드레스 : 실용성의 예

후에도 그 인기도를 계속 유지해 나감을 보아 알 수 있겠다.

많은 여성들이 고급옷의 세척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McCardell은 실용적인 데님 섬유와 면 Sailcloth, 면 레이온, 신축성 있는 양모저지 등 새롭고 실험적인 섬유를 사용해 보임으로 실용적인 소재의 통용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전쟁 중, McCardell 디자인의 메시지적인 요소의 그 특성으로 나타나는 실용성에 대한 증명은 1942년 Pop over(사진 23) 드레스에서도 여실히 보여준다. 전쟁 중, Happer's Bazzar의 패션 편집기자 Diana Vreeland와 편집장 Carmel Snow로부터 전문직 여성 주부와 전업주부를 위한 실용적인 의상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받은 McCardell은 단순한 실루엣에 앞치마와 오븐용 또는 작업용 장갑이 달려있는 Pop-over 데님 드레스를 선보였다. 패션에 관심을 가진 주부층 고객에게 스타일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호응을 얻게 되어 수십만 장이나 팔렸고 그 후 소재와 색상에 변화를 주면서 2년여 동안 그 주문이 계속되었다. 1941년의 “제한정책 속에서도 패션에 대한 뛰어난 해석”이라는 평가와 함께 1942년 Pop-over 드레스로 McCardell은 미국 패션 비평가 상을 받게 된다.<sup>32)</sup>

1934년, McCardell은 손빨래가 가능한 양모 저지소재의 슈트, 바지, 블라우스, 롱스커트, 할터넥 블라우스의 6가지 아이템으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 서로 바꾸어 가며 착용할 수 있는 세퍼레이트 된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발표한다. 이는 Mix and Match의 연출이 가능하며 사무직 여성, 학교교사, 젊은 여성 등 활동성이 높은 이들에게 간편하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활용도가 높은 장점을 지닌 채 각광을 받게 된다. 6가지 세퍼레이트 아이템들은 필요한대로 서로 다른 적용을 통한 연출로 코디네이트 시키는 시스템의 유용성과 실용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 양모저지 세퍼레이트 시스템은 인기리에 판매되기까지는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지만, 혼자 10여년을 계속적으로 착용해온 McCardell은 현명한 관찰력으로 잘 디자인된 옷은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확신감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그녀가 착안할 수 있었던 새로운 디자인 접근법은 옛날 디자인을 다시 만들거나,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옷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는 유행이 지난 옷을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국 여성들로 인하여 사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기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고이었다.

1951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10년 전에 산 나의 드레스를 단을 줄이고 조금만 변형하면 오늘 다시 입을 수 있다.”라고 했고 고객들은 실제로 시행할 수 있었다.<sup>33)</sup> McCardell의 고객들은 매 시즌마다 McCardell의 의상이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옷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디자인 접근법으로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실용적인 장점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를 그녀 의상의 실용성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 ③ 대중성

32) Ibid., p. 68

33) Ibid., p. 95

1943년 Mademoiselle지는 McCardell에게 “가격이 싼 멋진 제품”, “고급 의상들을 적절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승리”, “고급 의상들을 대량 생산 할 수 있는 그녀만의 재능”을 제공한 공훈으로 Mademoiselle 공로상을 수여했다.<sup>34)</sup>

한때 미국의 생산업자들이 파리의 디자인을 부끄럽게도 값싸게 복제하는 것을 보아온 McCardell은 이를 표면화시켜 부인하고 승화시켜,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량생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그녀의 창의력을 함축시킨 디자인에 대량생산 시스템을 합성화 시킨다.

“나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좋은 디자인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런 패션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sup>35)</sup>고한 그녀가 패션의 민주화,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증명된다. 1939 Wrap-front 드레스, 1941년 Pop-over 드레스 등은 엄청난 유명세와 함께 주머니 계속 쇄도해, 몇 시즌을 연속해서 소재와 색상, 디테일 등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연속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op-over 드레스 가격은 첫 시즌의 가격인 \$6.95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Norman Norell은 1972년 그의 회고 집에서 “1943년 McCardell이 첫 Coty 상을 나대신 받아야 했다. 왜냐하면 McCardell은 그 모든 좋은 디자인을 대량 생산이라는 범위 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실용적이고 싸다는 가격의 이유만으로 이러한 패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중상류층 여성들에게조차도 McCardell 의상이 높은 지지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민주적인 사고 즉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녀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복의 민주화에 대한 그녀의 사명감이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저널리스트, 패션기자들, 할리우드의 배우들, 직업여성, 전문직 여성, 학생을 포함한 젊은 여성, 패션모델 등 진보적 사고를 지닌 여성, 교외 생활을 하는 주부들,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그녀 디자인의 원칙과 열정을 이해하고 그녀의 고객이 되었다. 이를 통해 그녀 의상의 대중적인 인기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McCardell의 의상은 보통 여성들의 봉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 New York Times의 권위있는 패션 기자 Bernadine Morrie는 McCardell의 충실한 고객인데 그녀는 1950년 초 W.W.D.에서 받은 그녀의 첫 봉급으로 McCardell 컬렉션을 샀다고 했다. 할리우드의 거물급 부호인 Howard Hawks의 부인 Slim Keith는 우아함과 세련미로 McCardell의 컬렉션의 완벽한 지원자가 돼 주었다. 그녀의 옷장에는 “Claire McCardell Clothes”와 10배 정도 비싼 옷들과 함께 걸려있었다. Best & Co. 의 소유주의 딸인 Peg Le Boutillier은 “맥카델은 대량생산 제품의 옷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컬트적인 존재이고 세련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많은 패션리더들에게도 같은 존재이다. McCardell 이전이나 이후 디자이너 중 이 두 계층 고객을 다 만족시키고 옷의 가격을 맞출 수 있는 디자이너가 어디 있겠는가”<sup>36)</sup>라고 미국 패션계를 위해 공헌한 McCardell을 평가했다.

34) Ibid., p. 117

35) Ibid., p. 13

36) Ibid., p. 114

그녀의 의상은 사회 계층의 다양한 부류의 여성들을 위한 즉 대량생산 방법을 통한 저렴한 의상을 즐기는 사람부터 패션리더나 상류층 여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의 대중성을 지닌 민주적 의상인 것이다. 이에 이러한 그녀 의상의 특성을 McCardell 의상의 대중성으로 분류하였다.

**<표 1> McCardell의 의상의 미적 특성**

| 미적특성 | 실루엣  | 디테일   | 소재  | 디자인 특성   |
|------|--|---|---|--|
| 순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선의 미</li> <li>◦ 자연스런 직사각형 실루엣</li> <li>◦ 자유스러운 스타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스러운 바이어스 컷</li> <li>◦ 허리선 컷팅 라인 생략하고 끈, 고무줄로 연결</li> <li>◦ 잠금장치 대신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볍고 신축성 있는 양모 혼방 저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함, 기능적, 자유로움, 창의적</li> <li>* Honeatic 드레스- 창의적, 혁신적인 디자인</li> <li>* Dipen 수영복</li> <li>* Empire style 드레스 - 자유스러움 강조</li> </ul> |
| 기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기 편하고 장식 없는 기능적인 스타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적인 기법의 이중 스티칭의 시접정리</li> <li>◦ 단추, 금속지퍼, 금속 잠금장치를 줄이고 스파게티, 새쉬로 벨트 대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탁용의 한 데님 섬유</li> <li>◦ 내구성 강한 면 섬유</li> <li>◦ 기능적인 섬유(식탁보용 린넨이나 앞치마용 린넨)</li> <li>◦ 매트리스 섬유</li> <li>◦ 아마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성, 유용성</li> <li>* pop-over 드레스-큰 주머니, 앞치마, 작업용 장갑으로 다용도 가능</li> </ul>   |
| 대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rap-front 형</li> <li>◦ 스타일의 편안한 X 자형 실루엣</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인 가격의 대중성</li> <li>* 플세탁이 용의한 대중적인 세련미</li> <li>* wrap-front 드레스</li> <li>* pop-over 드레스</li> </ul>                            |

#### IV. 결론

1930~1940년대 Lord & Taylors를 위한 American Look의 창조자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McCardell은 그 다음 반세기 내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장소와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Look을 창조하여 미국적인 건강함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제시하였다. 바뀌 입을 수 있거나 여행 시에 착용할 수 있는 의상,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스타일, 계절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입을 수 있는 의상 등 그녀의 유연성 있는 다양성은 세퍼레이트 시스템의 코디네이트 개념의 기능성 있는 스포츠 웨어으로써 고도의 우아한 스타일을 만들어 주고 있다.

기능적인 시각에서 패션에 대한 그녀만의 색다른 철학은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해석으로 디자인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20C 미국 패션의 대주자가 된 그녀의 성공을 이끌어 준 중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인들의 삶의 방법이 독립심이 강하고 실리적인 추구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들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19C 말부터 태동할 수 밖에 없었던 미국인의 스포츠 웨어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미국 여성들의 삶의 변화에 대안으로 등장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McCardell은 이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방법으로써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갔던 것이다. 그녀는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미국의 현대 스포츠 웨어의 성장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American Look을 생성시킴으로 현대 미국 여성의 스타일을 정립시켰고, New York의 7번가를 세계의 패션가로 발전시키기에 공헌하게 된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패션 비평가들은 미국에도 파리의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종전의 스타일이 부활할 것을 예견했다. 그러나 McCardell은 자신의 디자인 원칙으로 증명이나 하듯 기능 면에서 단순함이나 편안함 추구에 변함이 없이 종전 파리의 패션의 지나친 장식성에 대한 성실한 투쟁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단순함이나 편안함의 추구는 의류 소재나 생산 시장의 부족함에서나 사회적인 풍요함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쟁 중이라고 해서 잘 만들어진 옷이라고 반드시 비쌀 필요가 없으며, 좋은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편안함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녀가 디자인 활동을 통해 얻어 낸 철학이었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McCardell 의상디자인의 미적 특성은 순수성, 실용성, 대중성의 3가지 특징별로 분석 할 수 있었다.

당대의 파리 유행경향인 과장된 어깨선 강조, 규격화되어 있는 실루엣 등 유럽패션에 대한 획일적이며 종속적이며 모방적인 패션의 흐름 속에서 McCardell은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미를 철저히 배제시킨 꾸밈이 없는 자연스럽고, 신체의 활동이 자유스러운 스타일로 인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이며 유용성이 있는 조형적인 특징이 순수하고 단순한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복식에 있어서의 순수성이라 정의했다.

활동적이며 실리적인 생활을 요구받고, 또 추구하는 미국 여성들에게 McCardell의 실용적이고 신축성이 있는 섬유를 사용한 기능성이 부여된 의상은 당대의 여성들의 공감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세퍼레이트 개념의 Mix and match 표현 방법을 통한 실용적인 사고는 trendy 하지 않는 옷, 시즌이 지난 옷을 약간의 수정을 통해 다음 시즌도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으로써,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으로도 충분히 잘 만들어진 최상의 의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를 그녀 의상의 실용성의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또 다른 특징으로 보여 지는 McCardell 의상의 대중성은 값싼 미국의 복제품을 멸시하여 '20, '30년대 고가의 유럽 제품을 즐겨 찾던 미국인들에게 고급스타일을 대량 생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현대 스포츠 웨어의 대중화의 일익을 감당함으로써 미국 스포츠 웨어 시장에 적절한 가격선

을 형성시켜 대중적인 공감대를 이루어 놓은 것이었다. 이에 이를 대중성이라 정의했다.

McCardell이 그녀의 창작활동을 통해 추구하고 실현시킨 이러한 특성들은 현대 패션의 본질로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다양성들이 American Look의 본성으로써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결국 American Style의 기능주의 sports look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즉 New York 패션을 유럽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역할, 미국 패션 혁명의 촉진제의 역할을 이루어 낸 것이다.

독창적인 재배급으로, 2차 대전 중의 궁핍함과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 냄에 McCardell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미국 디자이너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녀는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에게 창작의 동기여부를 일깨워주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미국인의 정체성을 지닌 채 태동된 American Sports Look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최근의 기능주의 디자인의 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그녀의 디자인 철학이 우리의 의상디자이너들에게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바람직한 창작 활동의 모범으로 또한 제시되어 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접수: 2004년 1월 26일)

### 【참 고 문 헌】

- 정홍숙, 「근대복식 문화사」서울: 교문사, 1988
- 베비스 윌리어 저, 조규화 역, 「20세기 양식」서울: 수학사, 1933
- David Bond 저, 정현숙 역, 「20세기 패션」서울: 경춘사, 1922
- Collin, Michael, 한영호 김흥기 역, 「현대 디자인의 이해」서울: 자문당, 1992
- Guidot, Raymond 편저, 김호영 역, 「현대 디자인의 역사」서울: 아르스, 1992
- Marilyn J. Horn, Lois M. Guel, 이화연 외 2명 역, 「The Second Skin」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8
- Sparke, Penny, 「20세기 디자인과 문화」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5
- 이선화 「패션에 활용된 Raoul Dufy의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복식 50권 5호 2000.8
-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룩에 관한 연구」복식 50권 2호 2000.3
- H Havard Armason 「History of Modern Art」Harry N. Abrams Inc., 1986
- Caroline Rennolds Milbank,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n Style」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 1989
- Charlotte Mankey Calasibette, PhD.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N.Y.: Fairchild Publication, 1988
- Elizabeth Fwing 「His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London : B.T. Batsford LTD, 1987

Catherine Macdermott 「Book of 20 century Design」New York : Overlook, 1997

H.W. Janson, 「Form follow Function-or Does it? Modern design theory and the history of art」  
Amsterdam : The Academiche Preks, 1982

Kohle Yohannan & Nancy Nolf 「Claire McCardell Redefining Modernism」 New York : N. Abnams  
Inc., 1998

Cobin McCardell 「McCard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NewJersey : Prentice-hall, Inc,  
1985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 · London · New York: PRESTEL Verlag,  
1999

## A Study of Claire McCardell's Clothes concerned on the Functional Sports Looks

Kookmin University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Park, Sun Kyung

This paper focuses on the influential career Claire McCardell provided women with designs that stressed comfort, practicality and integrity.

The foundation of McCardell's efforts-practical separates and sportswear-have become dominant themes in the American women's ware robe.

She vitionally founded the American look in clothes: sporty, relaxed, casual and comfortable. Clean functional design, fitness of purpose and respect for material were the used to create cloth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and way of life of the American woman.

It is easy to find functionality in every piece of work of her work. The characteristics of her works are innovative, but comfortable, simple, and ingenious at the same time. They are also practical and of popularity. These features helped modern fashion found its origin.

**Key words** : Functional sports looks. Ingenuity, Practicality, Mass-production capabilities.